

불교병원 개원준비위 구성

정관개정 · 기자재구입 등 실무논의 진행할 듯

재단과 학교측이 불교병원 개원 연기 이후 처음으로 개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열린 이사회는 재단·학교·동창회·동국의료원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개원준비위원회(이하 개원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개원준비위는 앞으로 병원 정관 개정을 비롯해 기자재 구입 등 개원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앞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개원준비위원 대부분이 이사로 구성돼 개원관련 부분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을 경우

어려움 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단이사 영배스님은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개원을 위한 내실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원준비위 구성으로 그동안 개원을 추진할 주체가 없다는 학내·외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원준비위에 이사들뿐 아니라 의료인 기획관리실장과 병원 건설본부장이 위원으로 포함됐고 실무팀 구성요구도 있어 조만간 기자재 구입, 직원 채용 등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개원준비위는 내일(8일) 1차 회

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내주체 공청회 준비

교수·직원·학생은 공동으로 병원 정상 개원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각 주체가 불교병원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온 재정문제 등을 관계자에게 질의하고 정상 개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토론자 선정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각 주체들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는 제15대 총장선거 후보자 모집일정과 겹쳐 입후보자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학내 주체들이 불교병원 정상 개원을 위해 대안 마련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에 머무르기보다 개원을 위한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직원노조 단독 선관위 구성 총장선거 합동 협의회 주목

후보자 유세 · 투표일 등 일정 논의

직원노조 단독 총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이 확정되며 총장선거 일정과 관련한 학내 주체의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는 지난 4일 열린 제10대 출범식 및 임시총회를 통해 노조 선관위를 구성하고 교수·직원·학생 합동 협의회 구성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또한 교수회는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다른 학내 주체와 함께 총장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합동 협의회는 각 선관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

후보자 등록 △토론회 △투표일 등 선거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규약한 직원노조 사무국장은 "협의회는 이번 15대 선거에 한해 운영되며 안건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만나 논의하며 융통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내구성원이 총장선거 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후보자 토론회와 소견발표 등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토론회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해소하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 부총학생회장은 "토론회가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내실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원노조는 총장후보자 등록은 교수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투표와 그 결과에 따른 후보자를 재단에 추천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감사=이관제(통계학), 조창욱(경주캠 경영학) 교수를 선임하고 오는 11월 중순 총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선거일정은 오는 18일 교수회 선관위 2차 회의에서 논의된다.

대학부
dmz@dongguk.edu

통일향한 힘찬 발걸음

내일(8일) 통일대행진으로 백상체전 개막

'장년만해, 지쳐 쓰러질 때까지,' 2002 백상예술체전이 내일 통일대행진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주요 일정은 △통일대행진 △9일=백상마라톤 △10일=가을운동회 백상가요제 등이다.

특히 이번 통일대행진과 가을운동회는 학교측이 협조해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통일대행진은 경기도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행진한다.

도착지인 임진각에서는 보물창고, 단체 풀넉기 등의 부대놀이마당과 백상예술체전 개막행사로 마당극 '홍부네 박 터졌네'와 통일 문예한마당 등이 이어진다.

▶관련기사 2면(보도)



지난 2일 종묘에서 주한미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총결기가 진행됐다. 본교 총학생회는 이날 본 행사 참가에 앞서 팔정도에서 '민족통국 즐거운 장례식'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가사 장례식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4면(사회)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등책협 구성 준비 등록금책정 구성원 참여 기구

학내 구성원이 등록금 책정과정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다음주 중 학교측과 등록금 책정협의체(가칭, 이하 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학기 학원 자주화 투쟁에서 '등책협' 구성을 위해 2학기부터 준비모임을 갖는다는 합의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등책협이 구성될 경우 학생·교수·직원 대표자들은 이듬해 예산 초안을 놓고 12월 중 책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 부총학생회장은 "등책협이 구성되면 매년 반복 됐던 등록금 투쟁 등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책협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총학생회가 준비한 예산편성 일정은 △10월 말=각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 △11월=기획실 예산요구서 검토 및 예산안 작성 △12월=등책협 예산안 조정, 기획위원회 예산안 조정 △다음해 1월=예산결산자문위원회 예산안 심의 △다음해 2월=이사회 예산안 심의 확정이다.

현재 등록금 책정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 대학은 한국외대, 건국대 등이 있다. 특히 건국대는 지난해 총학생회 건의로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합의했고 매년 반복됐던 등록금 투쟁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외대는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등록금 고지 전까지 이뤄지지 않자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교병원 준공식 기부금 총 6억 1천여만원

지난달 27일 진행된 불교병원 준공식에서 기부된 건립기금이 총 6억 1천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부내역은 △일맥문화재단 2억원 △불교신자 주필순 씨 1억원 △재일교포 한기성 씨 5천만원 △일본 자매대학 280만엔(1천여만원) 등이다.

현재 불교병원 건립기금 기부자는 1만여명이 넘었으며 기부금액은 약정금액 포함 총 600여억원이다.

한편, 야간강좌에 재학생인 50대 이상 경영인들로 구성된 '경영발전 연구회'가 지난달 30일 학교발전기금으로 800만원을 송석구(철학) 총장에게 전달했다.

고송초청 법회 오는 15일 정각원

고송초청법회가 오는 15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고송법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며, 이번에는 정각원장 이법산(신학) 스님이 '현대인이 살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설법한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한 관계자는 "경제단, 취업단 등 여러 갈등요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간	행 사 내 용
오전 11시	대운동장 출발
오전 12시	문산 도착, 임진각까지 행진 시작
오후 1시30분	임진각 도착, 부대행사(보물창고, 단체 풀넉기, 통일 문예대회)
오후 3시	백상예술체전 개막식 (마당극 '홍부네 박 터졌네', 통일문예한마당, 통일 이정표 풍선 날리기 등)

교원인사 발령

본교가 지난달 25일 교원인사를 발령했다.

보직인사는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이윤근(경찰행정학) △사회과학연구원장=정용길(정치외교학)이다. 또한 지난 1일 승진 임

용된 교수는 △교수=정재형(영화영상제작학) 외 9명 △부교수=최대석(북한학) 외 9명 △조교수=정예경(미술사학) 외 20명이며, 신임 연구교수는 △불교문화연구원=김재란 이현옥 임승택 △동서사상연구소=허인섭 △한의학연구원=문성권이다.

보리소

크나큰 경종

불가에서 출가가 늦은 스님들을 일러 늦깎이라고 한다. 수많은 늦깎이 스님 가운데 한국불교 근대사에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 인물은 효봉(曉峰) 스님이다.

평양고보를 졸업한 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효봉 스님은 스물 여섯에 졸업한 후 서른 여섯이 될 때까지 10년 간 서울과 함흥 등지의 지방법원을 거쳐 평양의 고등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했다.

스님의 나이 서른 여섯 살 때인 1923년에 최초로 내린 사형선고 앞에서 몇 날 몇

밤을 뜬눈으로 지새며 스스로의 존재를 회의하고 사회구조에 대해 고뇌하게 된다. 자신이 갈 길은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와 유랑 생활을 하다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에서 계를 받고 법명을 받았다. 그때 스님의 나이는 서른 여덟.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버린 늦깎이 사미승은 필사적인 정진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최근 "불교에 귀의하겠다"며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파격

적 결단'이 세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나이는 55세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평소 강직하고 명예욕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려 나를 대로 결단을 내리고 떠나는 모습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며 잘먹고 잘사는 일이 곧 행복인 양 착각하는 사바세계의 속물들에게 크나큰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출가하여 스님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

이라.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한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을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라는 '선가귀감'의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결심의 계절 가을이다.

최 승 천
천태종보 취재부장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다음 신문은 10월 28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당신도 **대** 학생이라면

크게 될 녀석!

동대신문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사에서 배부 중)
②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분량)
- 원서마감 및 면접 : 10월 24일(목) 오후 6시
- 장 소 : 본사 회의실 (학생회관 지하 1층)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5면 학술교류 현황과 방향

본교는 아직 학생들의 자발적·주체적 학술교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교 현황을 타 대학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4면 전국대학생 총결기

주한미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대학생 총결기 현장을 살펴본다.

8면 이름의 숨은 의미

사회전반에 걸친 이름을 통해 이름짓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독립 생협, 상임이사제 대신
의결권 없는 직원 파견할 듯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
어영문화, 이하 생협) 독립법인 전
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됐던 상임이
사제도가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생활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유
덕기·생물자원경제유통학, 이하
발전위)는 지난달 30일 상임이사
제 대신 생협직원을 이사회에 참여시
키도 의결권을 박탈하고 발안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애초 생협이사회는 상임이사를
두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발전
위에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
이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위원들이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사회 의
결권까지 갖는 상임이사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문
제를 제기해 상임이사제도는 실제
로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다
시 회의를 열어 정관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생협 이사회 개최
일시를 결정한다.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일본·중국 등 18일까지 신청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국제교류실이 2003년 3월부터 1년
간 파견하는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
생을 선발한다.

▲일본=용곡대 2명, 불교대 고마
자와대 사포로학원대 오타나대 각
1명씩 선발하며, 학부 2학년생과
대학원 재학생에 한해 지원가능하
다. 오타나대는 대학원생만 지원가
능하다.

▲중국·대만=상해사범대 3명
청화대 중국문화대(대만) 각 2명씩
북경대 남경대 각 1명씩 선발하며,
지원자격은 학부 2학년 재학생이다.
단 학부 재학생의 경우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서는 오늘(7일)부터 18일까
지 본관 2층 국제교류실에서 교
부·접수한다.

축구부, 추계명맹전 출전
15일 세종대와 첫 경기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오는 15일
부터 열리는 '2002 힘벌코리아배 전
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 종합운동장
과 명지대 용인캠퍼스 구장에서 다
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총 44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
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본
교는 선문대, 세경대, 영남대와 함
께 4조에 편성됐다. 본교는 15일 오후
3시 세경대와 명지대에서 첫 시
합을 갖는다.

2002 백상예술체전 개막

장승꾸기 등 학생참여 유도 행사 다양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
가 주최하는 2002 백상예술체전은
'신기한 장승 꾸기' 행사, 깃발 축
제 등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교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오는 9일 불상 앞에서 열리는 장승
꾸기 행사는 우리놀이 연구가 이철
수 씨를 초청해 학생과 함께 장승
을 만들어 다음날 후문 근처 화단
에 심을 예정이다.

깃발 축제는 염색용 색종이와 천
으로 깃발을 만드는 행사로 수상
작품은 학생회관 근처에 일주일 동
안 상설 전시하게 된다.

또한 오는 9일 오전 11시 시작되
는 백상마라톤은 중앙도서관 앞에

서 출발해 국립극장, 남산타워를 거
쳐 중앙도서관까지 약 10Km에 걸
쳐 진행된다.

한편, 마라톤 남·여 우승자에게
는 순금 5돈이, 2위와 3위에게는 각
각 순금 3돈과 1돈이 수여된다. 또
한 4위 5위 6위 15위 34위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대운동장에
서 가을운동회와 체전 시상식, 가
요제가 진행된다. 오는 10일 오후
3시 열리는 가을운동회는 △백상에

씨를 대회 △골프쇼 오래 클리기
등이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시상식과 가요제
는 △락 그룹 공연 △춤 공연 △가
요제 △동문 선배, 교수 격려 영상
△결과 발표·시상 △농구, 축구 우
승팀 시상 △페막 선연 △축하공연
△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총학생회는 뽕튀기, 먹
은 테일 등 '추억의 먹거리'도 준
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 기간 전 응모한 디지
털 카메라 사진 수상작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패러디 포스
터 응모작은 행사 기간 중 팔정도
에서 전시한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차 없는 날 ...

차 없는 날로 지정된 지난 4일 동아내 주차공간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학내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차 없는 날로 지정된 지난 4일 동아내 주차공간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학내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동아리 연합제 24일 개최

이틀간 공연·전시 선보일 예정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백종현·경영3, 이하 동
연)가 오는 24일부터 이틀동안
'2002 동아리 연합회 Autumn
Festival'을 개최한다.

'Feel Nirvana'라는 모토로 진행
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

야의 학내 동아리들이 그동안 준
비해온 공연, 전시 등(아래 표 참
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동연의 한 관계자
는 "새로운 비대위를 조직하면서
집행부가 부족해 지난해에 비해
행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장소	날짜	24일	25일
다함관		통계조사 연구회 DUSSA 전시	
중도 앞		영어 연구회 TIME 전시	
필정도		자연과학 연구회, 민화월 전시	
불상 앞		현여울, 경당치우, 검도부 공연	
심우정 옆		기우회 총장배 비독대회	
만해광장		중앙공연(오후 5시 30분)= 몽계구름, AJAX, ODC, 피어리스턴, 초대가수 박해경 피비스	

동국인 체육대회 20일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별 경합

총동창회(회장=권노갑·경제53
졸)가 2002 동국인 체육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체
육대회는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리며 서울 경주 대구 등 10여 팀
으로 나눠 경기를 치른다.

종목은 △배구 △줄다리기 △단
체줄넘기 △사물놀이 등이며 종목별
1, 2, 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에는 친선 골
프대회와 전야 만찬회가 사전 행사
로 열린다.

한편 참석을 원하는 지부·지회는
참석 의사와 참석자 명단을 오는 11
일까지 총동창회로 통보하면 된다.

올해부터 학생회선거 세칙 개정

학생 참여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
원장=정석중·수교4) 산하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올
해부터 학생회선거 시행세칙을 개
정한다고 밝혔다.

정석중 중선위원장은 이번 세칙
개정에 대해 "날로 저조해지는 학
생들의 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요 세
칙은 오른쪽 표와 같다.

또한 선관위는 △입후보 자격=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회원의 10%
이상 추천 △무효표=중복 기표
전부에서 1란에 중복 표기 제외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선
거 장소=중앙도서관, 문화관에서
중앙도서관, 동국관 △총대의원회
입후보자 자격=회원 4개 단과대,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회원 6개 단과대, 30인 이상의 추
천을 받은 자 등으로 세칙을 개정
했다.

* 주요 개정세칙

	개정 전	개정 후
선전 유인물	유인물 3천부	유인물 4천부
	공동정책자료집 2천 500부 (경선 3천부)	공동정책자료집 3천부 (경선 4천부)
투표시간	셋째물 10시~13시 (이간강좌 14시 30분~18시)	셋째물 10시~18시 (이간강좌 14시 30분~22시 30분)
추가 삭제	합동유세 장소·시간은 불미됨 시 선분과 중선위가 논의 실의 선전물을 금한다	

불교미술대전 대상 박미진 양을 만나

"한국화와 현대미술 괴리감 줄일 것"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스님)은 지난달 30일 제
19회 대한불교미술대전 수상작
을 발표했다. 대상의 영예는 전
부분 통틀어 역대 최연소 입상
한 본교 박미진(미술4) 양이 차
지했다. 박 양은 "졸업작품을
출품해 큰 상을 받아 어리둥절
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미진 양은 지난 6월 "그림
에만 집중하고 싶어" 섬세한 작
업을 요구하는 불화를 졸업작품
으로 선택해 3개월을 매달렸다.
이 그림을 1차 졸업작품 심사
때 교수들의 권유로 이번 대회
에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열반'은 후불탱화가
그려진 무대를 배경으로 한 여
인이 승무를 추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작품은 조명
받는 여인을 밝게 표현하고 배
경은 어둡게 그려 역동적인느
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칫 평범할 수 있는 소
재를 차분한 색조와 정밀한 묘
사로 명상적 분위기와 신비한
느낌을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
다. 심사위원들은 현대적인 채
색방법으로 전통적인 회화를 표

현한 점에 대해 "창의적 작품을
발굴·격려한다는 대회의 취지
에 부합한다"며 박 양의 수상이
유를 밝혔다.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박미
진 양은 평소 '주역' 등을 즐겨
읽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
레 대학에서 한국화 전공을 선
택하게 됐다.

불교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휴학 중이던 98년 '오쇼라
즈니쉬의 배꼽'이란 책을 읽고
불교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다. 이후 '수월관음도' 등을
습작하며 불화를 익혔고, 그동
안 꾸준히 연습해온 인물채색은
불화를 그리는데 도움이 됐다.

현재 한국화와 무대 배경그림
을 놓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박 양. 하지만 "어떤 분야를 선
택하든지 이번 수상작과 같이
한국화와 현대미술과의 괴리감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석)
kauri21@dongguk.edu



대상 수상작 '열반'

회전무대

텀번 광장

O...지난주 초 여론광장에 글을
올린 학생들은 답변을 볼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는데.

알아보니 본교 홈페이지를 개편하
면서 여론광장에 있던 모든 글이 사
제됐기 때문이라고.
계시됐던 글을 삭제하기 전 며칠
동안 이전 글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을 공지했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삭제는
필수, 공지는 선택(!)"

조교부대

O...기초과학 실험강좌의 실습조교
는 다른 교양강좌에 비해 유난히 인
기가 많다는데.

이유인즉 실습을 돕는 조교가 한
명뿐이어서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꺼
번에 조교를 찾기 때문이라고

평균 30명 이상이 수강하는 실습강
좌에 배정된 조교의 수가 적어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 내에 조교의 도움
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오빠
부대의 아성에 도전한다. 실습실의
조교 부대(!)"

해화관 톱스타

O...해화관 2층 캠퍼스샵에서는
오랜 기다림에 학생들이 지쳐간다
는데.

알아보니 일부 학생들이 프린터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수백장 분량의
문서를 출력해 이를 기다리는 학생
이 줄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출력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포
린터가 두 대 밖에 없는 캠퍼스샵보
다 다른 학내 출력소를 이용해야 하
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인기 많
은 프린터! 나에게도 싸인 한 장만
부탁해."

고단한 휴식

O...도서관 여학생 휴게실을 찾는
학생들이 피곤한 얼굴로 되돌아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데.

이유인즉 휴게실에서 간혹 큰 소
리로 토론하는 스터디그룹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에서 스터디그룹 토론
을 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를 주는 일이 아닌지.

이에 여학생 휴게실을 찾는 한 학
생 왈, "휴게실 이용 수칙, 스터디그
룹 기입(!)"

제18회 추계명찰순례 안내

1. 순례일자 : 2002. 10. 11(금) ~ 10. 12(토) <1박2일>
2. 순례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천장선원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가비 : 오천원(₩5,000)
5. 접수기간 : 2002. 9. 30(월) ~ 10. 10(목)
6. 접수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2. 10. 11(금) 오후3시, 정각원 앞

학 생 처

직업흥미검사 실시

1. 실 시 ▶ 제1회 : 10. 1(화) 오후 2~3시
▶ 제2회 : 10. 10(목) 오후 2~3시
▶ 제3회 : 11. 5(화) 오후 2~3시
▶ 제4회 : 11. 14(목) 오후 2~3시

2. 접수 및 검사비 ▶ 접 수 : 학생상담센터
▶ 검사비 : 무료

3. 문 의 :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구내전화 3930~2)

학 생 상 담 센 터

취미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단기강좌 개설

여학생실에서는 교양습득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학기에도 **단기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극 대응
할 수 있으며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강좌로 학내에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한 문화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주 1회 2시간씩 총 5회 ※ 수강료 5,000원

1. 기간 및 강좌명 : 2002년 10월 21일 ~ 11월 22일 (5주)

강좌명	강사	내 용	요일·시간	비 고
이미지 메이킹	박 소 정 밝은미소 운동본부	1. 호감 가는 표정 연출 2. 바른 인사법 3. 아름다운 자세 연출 4. 메이크업 5. 커뮤니케이션기법	금요일 2:00 ~ 4:00	
댄스&댄스 (살사와 스팅댄스)	이 하 안 체육교육과 강사	1. 기본스텝연습 2. 실기 3. 반복	월요일 1:30 ~ 3:30	편한 복장 면양발 선착순 40명

2. 접수 및 장소 : 2002년 10월 14일 ~ 18일

계산관 1층(사범대 옆)
* 선착순 마감, 정원 이하는 폐강

3. 기타 문의 : 여학생실(☎ 2260-3056, 계산관 1층)

여 학 생 실

교원임용고사 대비 교육학특강

본교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인수자들의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대비하고 합격률을 제고하고자 교육학특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 기 간 : 2002년 10월 21일(월) ~ 11월 7일(목)
- ▶ 강의시간 : 매일 18:00 ~ 19:40 (100분 강의)
- ▶ 장 소 : 학림관 J201 ▶ 수 강 료 : 무료(교재제공)
- ▶ 안내사항 :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10월 14일 ~ 10월 18일
중에 사범대 교학과에 등록하기 바람.

▶ 시 간 표

일 자	과 목 명	연 사	장 소	비 고
10/21(월)	교육학개론	정진환	학림관 J201	
10/22(화)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박부권	학림관 J201	
10/23(수)	교육사회 및 평생교육	박부권	학림관 J201	
10/24(목)	교육행정 및 교사론	이영희	학림관 J201	
10/25(금)	교육행정 및 교사론	이영희	학림관 J201	
10/28(월)	교육학개론	정진환	학림관 J201	
10/29(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남경희	학림관 J201	
10/30(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고진호	학림관 J201	
10/31(목)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고진호	학림관 J201	
11/1(금)	교육철학 및 교육사	박범석	학림관 J201	
11/4(월)	교육철학 및 교육사	박범석	학림관 J201	
11/5(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남경희	학림관 J201	
11/6(수)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학림관 J201	
11/7(목)	교육심리 및 상담	조성숙	학림관 J201	

사 범 대 학

청년학생·여성통일대회 개최

우여곡절 끝에 일궈낸 첫 교류의 장

대회추진 1년 만에 개최 ... 안정적 '성사' 목표

'이제 남북 청년끼리, 남북 여성끼리 만나지.'

남북 청년과 남북 여성들도 첫 번째 독자적인 모임을 갖게 됐다. 지난날 24일 남북 청년단체와 여성단체는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청년학생통일대회(이하 청학대회)를 오는 13일부터, 여성통일대회(이하 여성대회)를 16일부터 각각 이틀 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두 대회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도 비슷하다. 지난해 8월, 농민·노동자 등 각 부문별 민간교류 가능성이 높아가던 때였다. 하지만 결국 이들 대회는 1년여의 시간을 거쳐 민간 교류의 '박자'를 타게 됐다.

지난 시간동안 가장 초조하게 기다려온 쪽은 청학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청학추진위)였다. 여성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여성추진위)와 달리 청학 추진위는 남북합의를 이뤄놓고 남측 정부허가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년여 동안 한총련, 범청학련 등이 적당체가 청학 추진위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거나 결정을 유보했다. 최근 정부의 허가배경에 대해 청학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인 것 같다"며 "가장 허가하기 힘든 청년학생부문에 통과된 것이라면 민간의 모든 문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청학 추진위는 이번 대회에 크게 두 가

지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대회의 안정적인 '성사' 자체다. 남북은 첫 청학대회 성사를 기념하기 위한 '합수식'을 행사 둘째날 진행한다. 남측이 한라산의 물을, 북측이 백두산의 물을 각각 가져와 합치는 행사다.

또한 청학 추진위는 청학대회가 정례화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학생간 교류로는 한총련의 방북대표 파견이 있었지만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중단됐다. 따라서 만약 청학대회가 정기적으로 치러진다면 남북 청년학생간 공식적인 교류 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총련의 방북은 불법이었지만 청학대회가 합법적인 교류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여성 추진위 역시 첫 대회인 만큼 남북여성의 만남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여성교류 역사는 지난 91년부터 약 3년 간 진행한 '아시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전부다. 때문에 여성 추진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측 여성단체와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회에서 남북은 첫째날 각각 여성과 관련된 미술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여성추진위 전문주 국장은 "아직 논제를 공유하기는 어려운 만큼 함께 느낄 수 있는 행사에서 공감대를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대회에는 참가자들이 다양



지난 8월 민족공동행사 중 부문별 상봉모임을 가진 여성대표들(왼쪽)과 청년대표들(오른쪽).

	청년학생 통일대회(13-14)	여성통일대회(16-17)
첫째날	-개막식 -6·15 공동선언을 위한 청년 연단 -북측 학생소년예술단 축하공연 -통일축구대회 및 체육오락경기 -축하연회	-개막식 -6·15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 토론회 -수예 및 미술전시 -유회·오락경기 -공동연회
둘째날	-통일노래무대 -환송연회 -폐막식 -공동산행(합수식 진행)	-부문별 상봉모임 -합동예술공연 -폐막식 -공동산행

하게 배정됐다. 두 대회 모두 의료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주요참가인사들이 남측 대표단과 별도로 배정됐다. 이들은 다른 참가단과 일정을 함께 하면서 부문별 상봉 때 같은 계열 인사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국가 교류가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이 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꾸는 게 민간 교류다."

얼마 전 민족통일대회 때 민화협이 한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장애물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류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렵게 개최된 청년대회, 여성대회가 남북 여성들과 청년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거리를 좁히기를 기대해 본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사설

준비된 '준비모임' 되어야

등록금채정협의회(이하 등책협) 구성이 가시화 될 조짐이다. 상반기 투쟁을 정리하며 이끌어 왔던 합의안 중 하나인 '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이번 주 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논의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 투쟁은 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이후 '개나리 투쟁'이라 불리며 매년 학기가 시작될과 동시에 통과의레처럼 겪어야 하는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이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학교측의 일방적 예산책정과 등록금 고지서 발부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학교-학생간 대립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연구와 학업정진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매학기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없는 데는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책정 과정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등책협의 구성 논의는 매우 뜻깊고 반가운 일이다. 차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예산책정과정에서부터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작년 등책협이 구성된 건국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상기할 만 하다. 하지만 등책협을 단순히 등록금 인상액을 몇 %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구로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책정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책임을 동반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며 주체라는 생각과 함께 서로에 대한 신뢰구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등책협 구성은 오랜 기간 등록금 투쟁을 하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본지 역시 사설을 통해 등책협과 같은 공식기구의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한 와중에도 합의가 어려웠던 것은 등책협이 학교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98년 학내 3주체가 함께 하는 '대학발전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반대로 논의에 그쳤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앞둔 지금,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등책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등책협이 형식적 자문기관이 아닌 실질적 협의기구로 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이제 곧 겨울인데...



여야후보 지역균형개발 정책 발표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하는 계기로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등 제시 ...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돼야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고질병으로 일컬을 정도로 오래된 문제다. 최근 여야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혹은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문제가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 공약 발표=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과밀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지난 1일 "일부 중앙부처, 국공립대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는 반대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노 후보의 '천도론'과 유사하다는 평이다.

이처럼 여야의 대선후보가 행정수도 및 중앙부처 이전 정책을 내놓은 것은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행가능성은 얼마나=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다.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지방에 3, 4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40조에 이를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물론 정부 종합청사와 청와대 등 행정기관 매각을 통해 어느 정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거액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은 행정수도 이전보다 수위가 낮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일부 행정부처를 지방으로 옮겨 정부부처가 흩어져 있게 되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비용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실행가능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북대 김형기(경제학) 교수는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행가능성만을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득을 얻는 기득권

세력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각 후보의 정책과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이들도 있다. 충북대 황희연(도시공학) 교수는 "행정수도 건설이나 어느 한 지역에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이전하는 식의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게 부처를 옮겨 각 지역이 특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향후 논의전망=여야 후보의 이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발표는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에만 골몰하던 각 후보들이 정책대결로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각 후보들은 충청권 표발을 다지기 위한 정치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고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공약을 제시했던 각 후보들이 공청회를 여는 등 성실하게 공약을 구체화 시킨다면 수도권 과밀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유현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장	장영길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손상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약로

공익 캠페인



“오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서울캠 정문을 통해 본교 안으로 들어오려던 차량들은 입구를 지키던 이들의 제재로 되돌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차량통행금지.’
 해화문 앞에서도 큼직한 표지판이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늘 뻔뻔히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익숙해져 있는 ‘좁은’ 동아로를 떠올려 볼 때 이와 같은 일은 그야말로 보기드문 광경이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차 없는 날’. 이는 총학생회 (회장=주진완·국교4)가 지난 학기 학원자주화 투쟁을 통해 학교측과 합의한 사항으로 학생처와 함께 시행하게 된 제도다.
 이 ‘차 없는 날’에는 학교 공용차량, 남품 및 공사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하지만 첫 시행일이었던 지난 4일은 완전한 ‘차 없는 날’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차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물레’ 들어온 앞체측 차량이나 제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당하게’ 자리를 꿰차고 있는 차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입구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이들과 들어가려는 차주인과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홍보 문제다. 실제로 입구에서 통제를 받은 이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미리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를 위한 사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은 넘쳐나 늘 골칫거리인 주차문제. 뻔뻔한 차들 때문에 정작 학생들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동약로.

한달에 단 하루만큼은 주차문제에서 해방되고자 한다면, 또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캠퍼스를 위한다면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차 없는 날’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대학생, ‘미(,)’ 치러 거리로 나오다

제2차 전국대학생 총궐기대회 ... 여중생 사건 해결 촉구



여중생 사건

지난 2일 궐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민족의 자주권을 찾자'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일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진입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대학생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는 등 반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등 11개 단체 소속 대학생 4천여 명은 지난 2일 서울 종로에서 '전국대학생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여중생 살인미군 처벌과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여중생 사건 이후 또다시 미군 장갑차에 의해 교통사고로 숨진 고 박승주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범대위 홍근수 대표는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확실하게 미군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외친 또다른 구호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였다.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제연합이 나서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국제

연대를 구축해 대 이라크 전쟁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김광일 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면서도 오히려 이라크를 공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중생 사건의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 등의 요구안이 담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과 투쟁결의문이 낭독됐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명동으로 이동해 정리 집회를 가졌다. 이후 일부 참가자들은 용산 미군기지과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집결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던 학생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 단체들은 다음달 3일 제3차 전국 대학생총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다. 여중생 사건, 박승주 씨 사망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반미시위는 미군 당국과 한국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대학생 단체 “반미운동 함께 합니다”

이제껏 반미운동은 학생운동 단체 중에서도 한총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일 진행된 전국 대학생 총궐기에서는 평소 반미운동에 주력해온 한총련은 물론 좌파운동 단체, 기독교 학생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여중생 사건 해결을 외쳤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11의 단체들이 한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선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한총련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학협, 연대회의 등 다른 대학생 단체들도 각기 대선팔망이 다르다. 그러나 이날 총궐기는 그동안 정치적 견해 차이로 함께 하지 못했던 학생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여중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학협 소속 강현아 양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앞으로 학생운동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여중생 사건 공동대응을 계기로 대선을 비롯한 다른 현안에도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복되는 집회 과잉진압 논란

집시법 · 집회진압책이 근본원인

“폭력경찰, 특하면 방패로 내리찍는다.”
 “경찰들도 많이 맞는다. 시위대는 그들에게 화풀이 말라.”

지난 2일 대학생 총궐기 직후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벌어진 시위 동영상이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주로 시위대와 경찰에 관한 공방이다.

최근 이처럼 경찰의 집회진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행됐던 경찰들의 경희의료원 파업현장 진압 사건은 이를 더욱 확산시켰다. 경찰이 일부 조합원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여중생사건 범국민대회 당시 기자와 시민이 큰 부상을 당한 일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집회진압정책이 공론화 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2000년에는 대우자동차 파업 진압, 롯데호텔 진압이 당시 사회 쟁점이 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비슷한 논란이 몇 달, 몇 년 사이 반복된 셈이다.

그러면 이처럼 집회진압에 대한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적한다.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폭력이 불법집회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으

로 간주돼 폭력진압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종로 ‘좁은 거리’는 시위 도중 경찰과 자주 부딪쳐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 거리를 지나는 시위대는 무조건 불법행위자로 간주돼 경찰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현재 좁은 거리 근처에는 대사관 건물이 있어 집시법상의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따라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집회진압경찰을 관리하는 전투경찰대법에 대한 지적도 있다. 최창동 전 부산의대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전투경찰은 명백한 군인인데도 이를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것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투경찰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전투경찰 부대는 일부 직업경찰을 제외하고는 군 복무자들로 조직되어왔다. 집회진압이 군복무의 일종인 셈이다. 그러나 적을 상대로 벌이는 군 업무를 시민을 향해 벌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투경찰대원들의 어느 게시판에는 “시민들에게 무기를

드는 것이 과연 국방의 의무인지 혼란스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 정부가 집회진압 경찰을 군 복무제도로 묶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운동사랑방의 정종권 씨는 이에 대해 “군인들은 노동력이 값싸고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어 집회를 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집회관련 논쟁은 보통 ‘전투경찰들과 시위대들은 모두 희생자일 뿐’이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된다. 어쩌면 시위대와 전경이 분노해야할 대상은 정작 시위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송승경 기자
 itsj@dongguk.edu



흔히 '전경'으로 불리는 집회진압 기동대원들.

의무경찰 인터뷰

“경찰 입장도 이해해야”

최근 시위도중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해 경찰의 진압이 폭력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직접 집회를 진압한 경찰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현재 의무경찰로 활동중인 유 모(25) 군을 만나 경찰이 생각하는 시위와 진압에 대해 들어보았다.

- 시위현장에서 힘을 때가 있다면.
 = 시위진압 중에 친구나 아버지 같은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몸싸움을 해야할 때가 있다. 그럴 경우 명령에 따라 주변 이웃 같은 그들과 부딪쳐야만 하기 때문에 진압하면서도 안타깝고 힘들다.

- 경찰이 과잉진압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 경찰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한다. 정부와 경찰도 기본적으로 시위를 안전하게 끝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폭력을 최대한 삼가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진압 중에 시위대가 허가된 장소 외에 집회 영역을 넓히려려고 전경을 밀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방어를 하지만 시위대의 공격이 심해지면 방어만으로는 진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시위 문화는.
 = 시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이기 때문에 진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지금보다 집회 영역을 확대하는 등 법의 테두리를 좀 더 넓혀야 한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현재 본교에서 이뤄지는 학술교류는 지대 대학과의 협정체결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교환학생제나 상시적 교류활동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 대학생 학술교류의 현황을 타 대학 사례와 함께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국경을 넘어 학문을 향해

자매대학과의 상시적 교류에 한정 주체적·자발적 교류 활성화 기대

학문과 다양한 경험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이 나오는 다른 경험을 해 온 외국대학생과의 지적 교류에서 느끼는 체험이 따른다면 배움의 의미가 더 배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외국대학과의 협정을 통해 학술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여러나라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술교류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이 외국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술 활동의 현황은 어떤가. 이를 타대학의 사례와 함께 알아본다.

본교, 여건 조성 미흡

본교에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술 교류 활동을 벌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국대학생들과의 학술 활동은 자매대학과 협정체결을 통한 교류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교환학생 제도나 상시적인 교류 활동에 한정돼 있고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학생들 간 학술교류는 거의 전무하다.

국제교류실 한 관계자는 "2000년부터 일본 사포리원대와 학생 학술문화 연구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는 있지만 단순한 문화교류에 그

치는데다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본교는 아직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술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술 교류 활동은 생겨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타대학, 주체적 교류 활성화

연세대에는 외국 학생들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서로 공유하는 국제연세학생회(IYC)와 국제연합학생회(UNSA) 등 학생자치 교류단체가 있다. 국제연세학생회는 현재 연세대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연합학생회는 국제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통해 외국대학생과 교류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대에서 이뤄지는 교류 활동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외교학과 학생들은 지난 99년 이후로 매년 일본 히토츠바시대 법학과와 국제정치학 분야를 주제로 학생 공동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에 대해 연구하는 서울대·게이오대 포럼(SKIP)도 99년부터 양 대학을 오가며 각 나라의 부실채권,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주제로 다루며 교류해 왔다.

자발적 연합 모임

아시아법학생회연합 ALSA(Asia Law Student's Association). 이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법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8년 생겨난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합 모임이다.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약 25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국제포럼, 아시안 포럼, 학술 여행, 협의회 등의 정기

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모임의 한국학생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대 김경수(법4) 군은 "지난 8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협의회는 '세계화와 국제분쟁'이라는 주제 아래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사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8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일학생포럼'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술교류 중 하나다. 이 모임은 한국과 일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전체 세미나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분과 토론회,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며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 대학생과 국외 대학생들간의 학술 교류 활동은 여러 형태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교 학생들은 이러한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최근 열렸던 법과대와 류코쿠대학과의 학생 심포지움은 본교 내에 학생들의 학술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본교 학생들과 외국 대학생들 간 학술교류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임기중 교수의 가사문학이야기 (3)



선비들의 가사와 새로운 말하기

조선왕조의 사대부는 양반들로서 지배계층이다. 그들의 활동영역 같은 사상체계는 한 점의 여백도 용납하지 않는 유교이념으로 중무장되어 있었다. 지배계층의 유교이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권의 신장이 필요했으며, 왕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충성을 강조해야만 했다. 그리고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인의 예지신이란 오상과 삼강오륜을 앞에 내세워야만 했다. 이렇게 하여 임금과 아버지와 남편을 절대시했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조선왕조의 사대부 곧 선비는 정서를 매몰한 절대권위의 상징이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말하기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한글 가사이다. 생각이 체계화되어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된다. 그리고 말을 더 체계화하면 글이 된다. 조선조 선비들의 새로운 말하기는 한글 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홍진에 문헌분네(안팎) 이내생애 어떠한가(바깥쪽) 옛사람 풍류문(안팎) 미칠까 못미칠까(바깥쪽) 처럼 안팎과 바깥 쪽을 계속 연결하여 앞의 안팎과 바깥 쪽은 안귀, 뒤의 안팎과 바깥 쪽은 바깥귀로 하나의 뜻 마디를 이루는 새로운 말하기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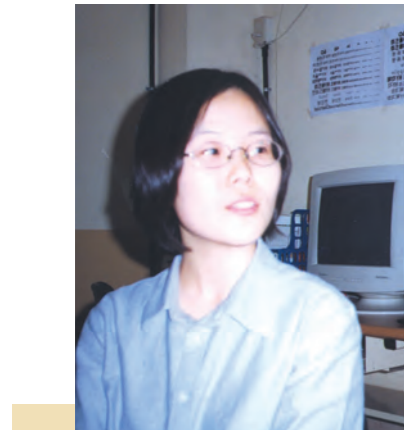
이 가사는 15세기 정극인이 단종이 폐위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전라도로 낙향하여 후진을 가르치면서 지은 삼춘곡의 시작부분이다. 이러한 말하기의 형식은 이미 일부 스님들이 그 단초를 연 것이지만 조선조의 선비들에 의해서 보편화된다. 일정한 가락이 형성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읽기에 편했으며, 자연스레 읊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말하기는 절대권위에 매몰되어버린 선비들의 정서를 발굴해내는 데 기여한다. 그리하여 조선조 선비들의 말하기에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언어가 선택되며, 피지배계층인 서민들과 비로소 정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민의식을 가진 선비와 선비의식을 가진 서민의 등장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다. 입만 열면 인의예지, 예의염치, 효제충신 같은 빛 바랜 유가적 투석어 선택의 말하기가 가사를 통해서 영롱한 창조적 언어선택의 말하기로 바꾸어진다. 사상만 세뇌시키던 말하기가 살아 있는 정서를 피워내는 말하기로 바뀌어진 것이다.

16세기에 정철은 속미인곡에서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뜻도 하구나 아, 너로구나 이 내 사설 들어보소"라고 노래한다. 선비의 체통을 내뽐던 언어 선택의 말하기이다. 그러나 그 정서가 누구에게나 소통되면서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새로운 말하기가 된다.

17세기 청백리이며 문장에 뛰어난 이원익은 한낱 이를 없는 무인 허진이 지은 머슴노래(고공가)에 답하는 머슴노래(고공잡주인가)라는 가사를 짓는다.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이 이를 없는 무인의 노래에 답하는 노래를 짓는다는 것도, 그가 머슴노래를 지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사라는 새로운 말하기가 만들어낸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한일 심포지움 참가자 송명선(법2) 양을 만나



본교 법과대와 일본 자매대학인 류코쿠대학 법학부 한·일 학생 합동 심포지움이 지난달 13일 본교에서 열렸다.

'21세기 신 한일 관계의 구축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 발제자로 나선 송명선(법2) 양을 만나 일본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 참가하게 된 계기는.
= 그동안 역사문제나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된 과목을 많이 수강했는데 지도교수님께서 제 관심분야를 아시고 이번 심포지움 참여를 권유했다. 또 이번 심포지움 주제를 듣고 참여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발제자로 나서게 됐다.

-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 우선 일본학생들이 한일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류를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상호 인식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는 성과도 이렇다고 생각한다.

- 이번 심포지움에서 아쉬웠던 점은.
= 일본학생들과 학술교류를 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같다. 류코쿠대 법학과와 본교 법대간의 학술교류였지만 법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과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또 한일문제다 보니 학생들이 관점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약간 감정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어의 장벽도 문제였다. 한일 학생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동안 통역이 필요했고, 통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준비기간이 짧아서 양이나 깊이 면에서 미흡한 발제를 진행해 아쉬웠다.

- 앞으로 학생들 학술교류에 바라는 점은.

=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국외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를 준비하는 것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학생들간의 학술교류가 아직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의 많은 지원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간의 학술교류가 단순한 문화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으로 깊이 있고 진지한 논의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상호 인식 차이 느끼고 의견 좁힐 수 있는 기회

전공학문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의 장' 돼야

대학은 학술적 탐구와 토론문화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 전공분야별 스터디 그룹을 통해, 그리고 인접학문간 상호연계적인 학술

대회의 단과대학별 개최를 통해, 학구적 분위기가 구성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매대학, 또는 공동관심사를 가진 외국대학과의 접촉을 통한 학생자체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그 분위기가 원심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문탐구와 토론은 구성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학술교류의 소용돌이가 되어야만 한다.

1990년대 이후 대학 내 면학분위가 활성화된 지금, 대학 내 전공별 스터디 그룹이나 세미나가 활기를 띄고 있다. 문제는 국제화되어가는 학문 세계에서 학술적 연마와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 보다 다양한 메뉴와 실질성과 구체성을 지닌 학술교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가 느껴지는 요즘, 학생들에 의한 학술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각 전공별로 의존하고 있는 학문적 분산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본교가 학술협정을 맺고 있는 자매학교라면 학교당국에 의뢰하여 상대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IT 등 분야별 역사와 현주소, 상대적 위치에 있는 외국대학이나 해당 전공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 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술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때로는 전공학과 별로 학과장이나 교수님들께 의뢰해 학술교류가 가능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일단 대상대학이 선정되면 2가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해당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탐방하여 해당 분야의 학문적 관심사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연구의 초석으로 삼는다.

이러한 탐방계획은 이미 지난 여름 학생처에서 주관한 동국해의탐방 프로젝트에서 이미 그 현실성과 구체성이 드러났지만, 문제는 경비다.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과 이해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만 있다면 자비로 시작하고, 숙성단계를 거치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부, 교육부, 기업체 등의 지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번에 정보산업대에서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캐나다의 UBC대학에서 IT연수, 인턴쉽, 영어연수를 겸한 6개월간 대학탐방도 그 좋은 사례이다.

두 번째 방향은 본교와 상대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된 국제학술대회를 교차 개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과 교수들의 자문과 지도를 받아들여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아직은 기성 학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같은 규모로 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일단 전공분야 또는 인접분야 간의 주제를 설정하고, 각 세부 분과별로 발표자들의 공동 관심분야를 조직화하여 우선은 국제어라 할 수 있는 영어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후에 한국어와 해당국가의 언어로 발표하게 하면 각 분야의 학문부기 조성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학생에 의한 국제학술교류에서 학생들은 자기 분야를 공부하는 상대국의 학생들과 진지한 토론과 학술적 논쟁을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공학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술적 연마와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졸업 후 자기 분야에서 국제학술대회나 국제컨벤션에서 능력을 갖춘 프레젠테이션을 매력적으로 수행할 미래의 동국인이 되어갈 것이다.

김영민 국제교류실장·영어영문학과 교수

21세기 지식인 사전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근대 감옥은 권력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인한 형벌 대신 감시와 규율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9~1984)가 자신의 독특한 '권력' 개념을 보여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1929년 프랑스의 소도시 푸아티에에서 태어난 푸코는 파리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소르본대학에 진학해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61년에 그는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광기의 역사'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정신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인 '이성', 비정상을 정의하는 '광기'에 대해 주목한다. 이성은 합리성을 가정한 몸매성이며, 광기는 낯다른 행동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검열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광인, 범죄자 등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타자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곧 동성 연애자인 자신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다.

또한 푸코는 1971년 출간한 '담론의 질서'를 통해 사회를 지배하는 힘있는 자들만의 '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1984년 에이즈로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성의 역사 1, 2, 3' 등 여러 저작물을 남겼고 현재까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근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나기

양심적 병역거부, 나는 이렇게 본다



△빨리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기를...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막 짜증이 나는 것은 왜 일까?
 △특목특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 대우하기는 커녕 불이익을 가하는 '국민의 정부'의 미결자 울며 꼭 처리되어야 할텐데...
 △여자로 태어났어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
 △대중에게 호소하면 들어 줄 거야.
 △조용히 국적 바꾸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양심적!
 △국방의 의무가 남는 불평등을 넘어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위기!
 △국가가 없다면 우리 행복할까, 불행할까.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제도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그 누가 군대에 가겠는가?
 정작하게 군대 가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바보란 말인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소신껏 병역기피 하고 가기 싫으면 그냥 가기가 싫다 해라.
 △무조건 가야 한다.
 △남자는 보병이다.
 △2년 6개월 징역살라 그래.
 △양심적 병역 면제가 가능하더면... 참선!
 △권리는 황금처럼 보고 의무는 돌같이 보는 이들의 자가당착적 논리.
 △갔다 오신 분과 안가신 분의 답변 차이는??
 △군대 가는 사람은 호군인가?
 △군대... 갔다 와야 남자다.
 △병역은 국민에 대한 봉사이다. 양심이라는 좋은 말을 아무데나 쓰지 말기를...
 △병역을 받는 사람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뭐.
 △약용되지 않는다면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군대가느니 차라리 감람을 가졌다.
 △니들이 군대를 알아??
 △양심적 병역 거부, 이는 용기있는 자만이 가능하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고 뺨 없는 내가 죄!!
 △군대가기 싫으면 유승준처럼 국적 바꿔라!
 △국민의 의무인데 거부라니 말도 안 된다.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장은 소정의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군승사관후보생 합격을 축하합니다.
 -민성, 민룡
 △민주법학회, 제2회 노동모의재판을 축하합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모든 민주인에게 감사하고, 성공적인 학술제를 기대합니다. 10월 7일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미성
 △나도 잠미 생일 축하해. -수경이
 △교보생(정오), 10월 9일 생일 축하해!!
 △10월 17일 정치외교학과 고명진 군의 생일 축하합니다.
 △역사교육과 02학번 순환아~ 생일 겁나게 축하한다. -선배 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학원론 3조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즐겨거운 장례식 준비하신 여러분, 수고했어요.

말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을 새겨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삶과 직접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나 그 기관의 말할 특히 행정용어나 법률용어, 의학용어 등 전문용어를 보면 그 사람이나 기관의 의식구조를 읽을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사한 2001년 6개월 동안에 주요 일간지에서 쓰인 새말의 분포를 보면, 어려운 한자말이 2천 293개(79.5%), 외래어가 749개(25.0%), 고유어가 512개(17.8%)이다. 이 중 경제용어가 으뜸이고, 컴퓨터용어가 다음이요, 법률 및 사회용어가 그 뒤를 따른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지도층의 말할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2000년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해 준다. 더욱 오늘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기기를 부리는 이른바 신 언어통제의 산물인 영어공용어의 부추김과 봉건적 산물인 한자부활의 특성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 통제의 곡선은 더욱 가파르게 될 것이다.
 그러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조선조의 봉건적 한자 계승의식의 잔재와 일제의 지배 의식의 잔재가 그 한 원인인요, 새로운 외세에의 맹종



논단
 김석득
 미술회 회장·연세대 명예교수

특권 의식 깨는 '한글 쓰기'

과 외세 우월주의가 파생시키는 허세가 또한 그 원인이다. 지난날의 봉건과 오늘의 세계화란, 서로 모순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의식구조의 변화에 서는, '자기 깨달음' 없는 신구 종속주의가 서로 통하는 권위주의'라는 데서 그들은 한통속이다. 앞서 말한 바 지배층 경향의 통제는 지난날의 한자 공용어 시대나 일본어 공용어 시대가 남긴 지배적 말의 잡풀을 그대로 둔 채, 그 몸을 따라 어려운 용어를 더 만들어 보태고, 지난날의 일본어 공용어였던 것을 영어 공용어로 외래어가 범람하고 또한 침투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현상을 가

장한 역사적 수레바퀴의 뒤 물림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말할살이의 순리적 흐름과는 역행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역사의 뒤물림 현상이 가장 심한 것이 역사적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행정, 법률 등의 관료 말과 의학 등의 사람의 생명 관계 말들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는 변함없는 옛 관료의 보수성과 21세기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가령, 자주 민주주의의 기본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말들을 보면 이곳이 자주 민주 입법 기관인가를 의심할 만하다. 사법부는 지난날 뜻 있는 대법원장이 일본 법률 용

어를 우리말로 새로 창안하여 쓰라고 한 이래, 오늘날 재판 기록은 되도록 쉬운 말로 한글화하고 있지만, 법전은 아직도 일본 법률 용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법을 대하는 국민은 일체를 연상하는 서술이 퍼려 그 말끝만 듣고 보아도 그만 겁에 질린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용어는 무릇 일반의 이해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학용어 등에 지난날의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는 것은 또한 권위주의의 발로로써, 이는 환자나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다. 물론 환자를 심리학적인 쪽에서 보호해야 할 용어까지 지적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이나 운동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가 현장에서 실천하느냐이다. 그러나 이를 깨는 일은 끈기 있게 이어져야 한다. 자기 있음의 깨달음과, 국민을 멀리하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버림과 사람에게 주어질 창의적인 힘을 부리는 등 의식구조의 혁명 운동에 함께 해야 한다. 이 깨뜨림의 깨달음은 바로 겨레 열의 지킴이요, 삶의 평등과 정당한 인권의 대우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길이기 때문이다.

힘들었지만 보람된 모의재판을 마치고

법대에서는 해마다 화회별로 지난 한 해 동안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술제를 개최한다. 그 중 내가 속한 형사법학회의 형사모의재판은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행사이다.
 매년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법적 사건들을 주제로 삼아 여기에 살을 붙이고 극을 구성하여 우리 스스로 판결을 내려보는 것이다. 이번에는 올 초 사회면을 장식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쏘아 죽게 한 사건을 바탕으로 극을 구성해 보았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연기 지도하는 선배들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면 꼼꼼히 적어가며 되뇌어보는 후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후배, 지적해 준 사항들이 다음날이면 완벽히 고쳐져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시작할 때의 부담은 사라져 갔다. 이렇게 노력하는 후배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를 분발하게 했다.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달 30일 막을 올리게 되었다. 혹이나 후배들이 실수할까 걱정되어 극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소감담을 꼭 채운 관객들이 우리가 준비한 행사를 보고 웃고 감동하는 모습에 너무 기쁘고 큰 감동을 얻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한 달간의 행사모의재판에 미처 있었던 까닭에 아직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모두의 노력이 빛을 낼 수 있었기에 당분간 이렇게 지내고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이혁주 (법과대 법2)

중국의 무한한 가능성

최근 각 대학마다 증여중문학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특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재학생들에게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무서운 나라' 중국의 잠재가능성을 대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13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더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대륙으로 발전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별로 중국에 진출을 한 상태이다.
 중국이란 국가를 접하는 본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명문 대학과 자

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를 익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가 하면, 교환 교수를 초빙해 현지인과 회화 할 수 있는 어학강의를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는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 실시된 전국대학평가에서 나타났다. 중앙일보 기사 중 '대학마다 중국전문가를 키워라'라는 소제목이 실릴 정도로 중국어 배움에 대한 열풍이 가득할 때 본교 증여중문학과도 당당히 10위권 내 순위에 올라간 것이다.
 전국에서 졸업생 순수 취업률 6위, 학생·졸업생에 대한 평가 10위, 최근 4년 간 교수 저서 실적 10위를 차지했다. 지방에 위치한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과 당당히 경쟁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졸업생들이 남긴 졸업생 순수 취업률 6위라는 의미 있는 선물을 나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지켜나가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이미 (인문대 중문2)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아리 활동의 방향제시

지난호에서 주제기획 '동아리 위기와 대안'은 학내 대학문화가 상실되어 가는 시점에 적절한 기사였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앞으로 동아리가 나갈 길을 올바르게 제시했다고 하겠다.
 다만 동아리 위기의 주된 원인을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현실이나 애매한 개인주의적 성향 탓보다는 M세대, W세대로 표현되는 신세대 특성 분석과 소개가 아쉬웠

다. 정보사회화자 돈 탭스콧은 이런 세대의 문화적 특징을 강력한 독립성, 정서적이고 지성적인 개방성, 포괄성, 자유로운 표현과 관점, 혁신, 성숙함을 갖춘 몰두, 조사, 즉각성, 공동 관심사에 대한 민감성, 증명과 신뢰로 꼽는다.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어학, 컴퓨터, 창업 동아리에 불리는 현상과 2면에 난 '탁구 동아리 해체' 기사는 동아리 문화계 개혁과 중구민들과 함께 만드는 거리축제를 통해 대학문화의 꽃을 만들어 간다는 이상의 벽이 아직도 높고 협난함을 말하고 있다.
 최일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서울캠 위주 기획 아쉬워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으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는 동아리에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학교에서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동아리 위기 문제가 타 대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나는 설문조사에서 골프동아리가 생기면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학교측의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설립,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이러한 본교 상황과는 다르게 동아리에 지원하는 타 대학의 좋은 모범 사례는 본교에서도 동아리 지원 확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경주캠 동아리 소식을 많이 다뤄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설문 관련 기사만 동일한 뿐 대부분은 서울캠 위주였다. 동아리 문제 토론에 있어 서울캠 구성원들로 구성하기보다, 서울캠과 경주캠 동아리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했더라면 서로 상대방 캠퍼스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윤주 (인문대 사회복지2)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은망글

축하합니다

△행정2 민정아, 생일축하 해용!!! 즐거운 생일 보내구 앞으로 잘 지내고 사랑해.
 △이민정!! S.H 군과 잘~해봐. -Y양
 △남남 고마운 내 친구 준희의 20번째 생일을 진짜진짜 축하합니다. -정
 △안전공학과 한영아!! 2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할게. -안공 나머지자들
 △김성배, 최영용 생일 축하한다. -Jossi

수고하셨습니다

△창성아, 알바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이제 공부 좀 하지? -느낌남
 △동대신문 배부하시는 분의 팜방울에 감동 먹었어. -동국소녀
 △경제학과 M.T 갔다 오신 모든 선배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범수야 치질수술 한다고 욱했다. 같이 목욕탕 가자.

△미순이 효순이 추모 사진전 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고점음악 감상실 18기들 열심히 하자. -교남
 △준철아, 술 좀 그만 마시고 공부 좀 해라. -o.m
 △다음 번에 실용영어는 만점에 도전한다!! 열심히 할거야.
 △체전 준비하는 모든 이들!! 일등먹자!!
 △K야 내가 떠난 자리 열심히 해라. -kG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리고...

△나는 소망한다. 술 문화가 뿌리 뽑히길!!! -간염 걸린 사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ss
 △이보셔!! 학생들, 수업시간에 떠들지 좀 마시디!
 △신용카드를 생활화 합시다.

서울캠

	월(10/7)	화(10/8)	수(10/9)	목(10/10)	금(10/11)
동국관	최고기해중국 (1500) 제육겟잇볶음 (1500) 갈비경단백반 (1500)	어묵우동백반 (1500) 참치김치볶음 (1500) 치킨까스 (1500)	육개장 (1500) 미트볼덮밥 (1500) 맥물고기 (1500)	부대찌개 (1500) 치킨볶음밥 (1500) 얼무버블밥 (1500)	최고기당면탕 (1500) 하이라이스 (1300) 라조육 (1500)
상록원	최고기미역국 (1500) 오징어떡볶이 (1500) 비빔만두 (1300)	장터국밥 (1500) 제육덮밥 (1500) 순대야채볶음 (1500)	닭갈비 (1500) 해물콩나물찜 (1500) 쇠고기해수리이스 (1500)	사골곰탕 (1500) 참치콘볶음밥 (1500) 김치수제비국 (1300)	떡김치찌개 (1300) 치킨탕수 (1500) 콩나물밥 (1500)
교직원	해물된장찌개 (3000) 닭고지구이 (3200)	백반 (3000) 쇠고기버섯덮밥 (3200)	두부김치 (3000) 알탕 (3200)	굴정찬 (3200) 탕수육 (3200)	김치탕 (3000) 오징어소면무침 (3200)

경주캠

	월(10/7)	화(10/8)	수(10/9)	목(10/10)	금(10/11)
학생회관	김치국 (1300) 카레라이스 (1500) 쇠고기볶음밥 (1700) 육개장 (1800)	김치미역국 (1300) 스파게티 (1800) 치킨까스 (1700) 스페니쉬족탕 (2000)	김치양파국 (1300) 김치볶음밥 (1500) 참치야채비빔밥 (1800) 설렁탕 (1800)	콩가루채추국 (1300) 미트볼덮밥 (1600) 오징어덮밥 (1700) 육개장 (1800)	유부면진국 (1300) 산채볶음밥 (1600) 쇠고기덮밥 (1700) 곰탕 (1800)

가자! '빨간' 책방 살리는 축제로

장난 페스티벌 2002 ... 책읽기에서 대학문화까지 한 눈에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를 대출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다른 서적에 비해 권수가 많은 편이지만 예약자가 밀려 적어도 몇 주는 기다려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편 책꽂이에 비치된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의 사정은 다르다. 그 중에서도 전공관련 서적이 아닌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처럼 인문사회과학 서적이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를 취급하는 전문서점들은 경제난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고 현재 남은 곳은 전국에 세 곳 뿐이다. 그 중 하나인 고려대 앞 '장백서원'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겨우 명맥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들어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져 폐점위기를 맞았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은 장백서원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고 그 중 한 행사로 '장난(長亂)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 째를 맞이한 '장난 페스티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고려대·성균관대·동덕여대에서 진행된다. 대학문화운동에 관심 있는 타대학 학생들까지

가세해 행사 내용이 더욱 풍성해진 이번 행사는 '대학문화와 책읽기'에 대한 물음'이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읽기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변질된 대학의 위기와 소비문화 등 대학문화 전반을 돌아본다.

먼저 '기획강좌'로 마련된 초청강연은 대학생들에게 권할만한 책의 저자가 강사로 나서 학생들의 호응이 뜨겁다. 지난 2일 '서준식 옥중서한'의 저자 서준식 씨가 성균관대에서 강연한 것에 이어, 고려대에서 오늘(7일) '맑스를 읽자'의 저자 윤소영(한신대 국제경제학) 교수, 9일에는 '아름다운 집'의 저자 손석춘 씨가 '즐거움 책읽기, 실천적 책읽기'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고려대에서는 새내기에게 추천하고픈 도서, 베스트셀러 선정 기준, 종류별 판매동향을 적은 기획대자보전, 스티커 설문조사 등의 거리전을 선보인다. 특히 성균관대 및 인문사회과학서점 '논쟁'과 공동으로 내일(8일)부터 이를 동안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사회과학서적을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 하는 도서판매전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오는 9일 성균관대 금잔디 옆에서 열린

'음악과 책이 흐르는 작은 음악회'는 인디밴드 449프로젝트, 서울하늘 등이 참여해 자칭 지루할 수 있는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천지인·꽃다지·허클베리핀 등이 참여하는 폐막행사 '책, 삶, 그리고 희망 2002 장난'은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그동안 인문사회과학서점들은 작가 간담회와 민중가수 공연 등을 마련해 대학이 제대로 하지 못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대신해왔다. 때문에 이들의 폐점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대학문화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도 한 것이다. 물론 인문사회과학서점을 살리려는 움직임은 여러 사회시민단체들이 대학생들을 '대신' 해 꾸준히 이어왔다. 하지만 정작 대학가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의 반응은 무심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들이 주체가 된 '장난 페스티벌'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제라도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축제의 자리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하나 기자
sellonye@dongguk.edu

문화단신

인디다큐 페스티벌 2002

독립다큐 영화제 '인디다큐 페스티벌 2002(SIDOF 2002)'가 지난 2일부터 오늘(7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실질 진보 대화'라는 모토를 내건 이번 행사는 다큐멘터리의 동향을 살펴보는 '올해의 초점', 세계 다큐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감독들을 조명해보는 '회고전', '국내 신작전' 등 3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인도의 아난드 파와드르한 감독의 '전쟁과 평화'와 독일 현대화의 상징인 아우토반의 탄생과 건설과정을 다룬 '아우토반' 등을 상영한다.

뿐만 아니라 윌드킥 영국의 이면은 그린 '당신들의 월드컵' 등을 상영하는 특별상영도 볼 만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ido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34-3166

아시아 문화축제

문화관련 단체 '아름다운 재단' 등 6개 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축제'가 오는 27일 서울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한강공원 여의나루에서 6km 거북이 마라톤, 연날리기, 민속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작한다.

특히 이 행사에는 아시아 15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과 문화체육인 뿐만 아니라 기업인, 유학생, 산업연수생 등 5천여 명의 일반인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 725-4884

국립현대미술관 문화행사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의 달을 맞아 이번 달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야외조각장과 대강당에서 '10월 문화축제'를 마련한다.

음악회와 무용공연 등이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관객들에게 미술과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오는 12일 열리는 모던팝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있는 풍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학생들의 '현악앙상블' 등은 서양고전음악과 대중가요의 절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19일에는 '현대 미술과 현대 춤의 만남'이라는 무용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매주 일요일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철도원' 등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문의 2188-6000

'문학카페 명동' 기획한 소설가 현기영 씨를 만나

"작가, 골방 벗어나 대중속에서 호흡하라"

최근 문인과 가수의 뜻깊은 만남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무대에서 문인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논하고 가수들은 노래로 삶을 이야기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이어지는 '잡가라 지역감정'이라는 거리공연이 그렇고, 지난달 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밀리오레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문학카페 명동' 또한 그러하다. 이에 민족문학작가회의 현기영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 '문학카페 명동'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 이제 문인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 존재는 개인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분자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는 물론, 그 시대를 반영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작가가 그저 골방에 들어앉아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학카페 명동'은 그러한 탐구의 한 방법인 셈이다.

처음에는 그냥 문인들과 어울려 노는 한판을 만들고 싶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주었다. 이 자리는 가수들에게도 그 나름대로 문학의 향기가 깊이에 닿아 노래에 조금 더 깊은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연이려던데.

= 행사 기획 단계에서 우연히 녹색평론에 실린 최석각 씨의 글을 보았다.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찬다과 쿠마리 구름이라는 네팔 여성이 행려병자로 몰려 6년동안이나 정신병원에 갇혀 지낸 이야기였다. 이 글을 보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진 않았지만 공연 수익금을 안산이나 수원, 부천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쓸 예정이다.

- 그동안 세 번의 강연이 있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 가장 인상적인 건 무대 양옆에 전시해 놓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나 수기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 봐준다는 사실이었

다. 인권을 유린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불과 몇 년 전의 우리와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마울 따름이다.

- 지난 4일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문학카페에 참여했는데.

= 평소 노랫사의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좋아했다. 지난 80년대를 회상하면, 그들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노래로 신념과 투쟁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내가 군부독재 속에서도 '순이삼촌'이나 '변방에 우짖는 새' 등의 작품으로 제주 4.3항쟁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과 비슷한 면이 많다. 때문에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은 나로서도 굉장한 반갑고 의미있는 일이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작가는 능동적으로 독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들이 경박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작가들부터 특권의식을 버리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작가회의는 서울 시민을 위한 문학기행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놓여진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교육을 실시 중이며, 작품을 공모해 잡지도 발간할 생각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클릭!

강도영의 만화이야기(www.kangfull.com)



재로 써달라고 요청하면 운영자가 관련만화를 직접 그려 링크해 주는 점은 이 사이트만의 특징이다.

그리고 슬럼프, 웹툰 등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작품에 대해 풍부한 배경지식과 독특한 발상으로 비틀어 이야기해보는 '만화? 영화?'는 일반적인 평론과는 색다른 재미를 준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건들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만화를 선보이는 '지치지 않을 물음표' 역시 신선하다.

이 밖에도 이 사이트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사건을 날카롭게 풍자한 '비어리스 만평'이라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을 꼽으려면 개인이 운영하는 웹툰인 까담에 주관적인 성향을 띠고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사이트 '강도영의 만화이야기'가 웃음과 재미만을 주기보다는 사회 이모저모를 두루 접하며 새로운 시각 또한 키울 수 있는 사이버 만화방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석)
kauri21@dongguk.edu

하늘을 날고 적을 공격하는 강인한 전사, 인간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8등신의 미소년과 미소녀. 요즘 인기를 끄는 만화의 대부분은 이 같은 주인공들을 등장시킨다.

이런 비현실적인 만화에 따분함을 느끼는 이가 있다면, 조금은 만화답지 않은 만화로 가득찬 인터넷 사이트 '강도영의 만화이야기(www.kangfull.com)'에 접속해 보라.

강도영의 만화이야기는 2면제 만화모음 △만화? 영화? △지치지 않을 물음표 △자료실 △자유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자유게시판'은 독자들의 활발한 의견제시와 함께 운영자의 답변이 주를 이룬다.

특히 네티즌들이 시사각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만화소

불기2546년!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알기 쉬운 불교 따라잡기 행사 개최

어느덧 조석으로 바람이 쌀쌀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설레임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계절이요, 또한 사색과 명상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 온 한 해를 더욱 보람 있게 정리하고 여유와 나눔의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픈 학생들을 위하여, 9월과 10월에 걸쳐 약 4주 동안 아래와 같이 '이해와 접근이 쉬운 불교 관련 대중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 속의 불교 체험 및 정서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행사명	행사일시 및 대상	장소	접수기간	접수 및 문의처	비고
목탁배우기 강좌	1차 9.26(목) 18:30~ 2차 10.10(목) 18:30~ 3차 10.17(목) 18:30~ 대상: 본교 재학생	정각원 법당	9. 9(월)~ 10. 16(수)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 (2260-8759/017-304-3771) * 홈페이지 접수 가능 (http://www.dongbul.net)	참가하시는 모든 분께 목탁 배우기 자료집* 무료 배포
제18회 추계 명찰순례	10. 11(금)~10. 12(토) (1박2일) 대상: 모든 동국인 (선착순 45명)	충북 단양군 '천장선원'	9. 30(월)~ 10. 10(목)	본관 3층 학생복지실 (2260-3048)	참가비 5,000원
명사초청특강	10월말 또는 11월초 (미정)	본관 중강당	-	-	현각 스님 강연 (萬行·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著者)
산사체험 '바람보기·느끼기·나누기' 동계 수련대회	12. 11(수)~12. 14(토) (3박4일) 대상: 본교 재학생 (선착순 45명)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	9. 9(월)~ 동계방학일 전까지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 (2260-8759/017-304-3771) * 홈페이지 접수 가능 (http://www.dongbul.net)	참가비 25,000원 (02학번 선의생은 10,000원)

주최: 학생처 주관: 불교학생회
후원: 정각원·석림회

DUBS 수습국원 모집

밝고 명량한 시민 동국인의 소리를 이끌어 갈 역량 있고 첫실한 깨뜨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방송에 관심있는 22학번의 패기있는 도전을 기다립니다.

- 대상 : 02학번
- 모집 분야
 - ▶ 아나운서부 : 남자 0명
- 아나운서, 성우, 리포터 등
 - ▶ TV제작부 : 남자·여자 0명
- PD, 카메라맨, 편집 등
- 원서 접수 기간 : ~ 10. 10(목)
- 시험 일시 : 10. 10(목) 오후 6시
- 장소 : 학생회관 4층 교육방송국(DUBS)
- 문의 : 02-2260-8503 www.dubscast.com
inuada@hanmail.net (아나운서부장 : 이인화)
tvmaker@hanmail.net (TV제작부장 : 황준호)

교육 방송국

96th Anniversary 동국 청소년 연극제

기간 : 2002. 10. 9 ~ 10. 19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예술극장
공연 일정표

요일	1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시간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시	SET UP										
10시	서라벌고	사우고	한영고	경화고	남창고	영훈고	영동고	풍문고	포천고	용인고	학산고
11시	서라벌고	사우고	한영고	경화고	남창고	영훈고	영동고	풍문고	포천고	용인고	학산고
12시	STRIKE & SET UP										
1시	선린고	살레시오고	서울여고	광주중고	대진고	부천고	충주고	송곡고	경해고	안산고	2시 시상식
2시	선린고	살레시오고	서울여고	광주중고	대진고	부천고	충주고	송곡고	경해고	안산고	2시 시상식
3시	선린고	살레시오고	서울여고	광주중고	대진고	부천고	충주고	송곡고	경해고	안산고	2시 시상식
4시	STRIKE & SET UP										
5시	과천고	세원고	광주여고	광주중고	광주신고	광주새고	대원고	서해고	잠실고	건국대부고	목포고
6시	과천고	세원고	광주여고	광주중고	광주신고	광주새고	대원고	서해고	잠실고	건국대부고	목포고
7시	STRIKE										

주최 : 동국대학교
주관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
후원 :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동문회
협찬 : STC, STC ENGLISH IDEAS, INC.
www.stcei.com

매체비평

광고편 - 스포츠 스타

“스포츠 열기의 트렌드화

모델 따로, 메시지 따로”



지난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SK텔레콤'과 '삼보컴퓨터'.

2002년 6월 한달 동안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월드컵이 막을 내리고, 9월 말부터 부산 아시안 게임이 남북화합을 과시하며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TV에서의 스포츠 열기는 하나의 커다란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광고업계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각별해서 야구, 골프,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스타들은 그들의 경기장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TV 프로그램 사이사이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박찬호와 박세리의 성공신화로 본격화된 해외 스포츠 무대 진출은 국내 기업들에게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이제 모든 마케팅들에게 스포츠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 대회는 더 이상 국가 간의 단순한 스포츠 경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전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의 또 한편에서는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물려줄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으며, KTF와 SKT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선두자리를 놓고 숨막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최전선에는 늘 광고가 있다. 언제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에 목말라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광고는 월드컵 축구스타를 앞세워 소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 돌이키면 우리 아빠 어찌나?' 라고 능청스럽게 웃고 있는 차두리(국제전화 00700), '세상 무엇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멘트와 함께 미소를 짓는 마음씨 좋은 최진철(현대자동차 뉴베르나), '명보는 신세계로 간다'며 생전 딱 두 번째로 국민에게 그 귀한 미소를 선물하는 홍명보(신세계 상품권), 전문 모델 못지 않은 외모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김남익(삼보컴퓨터).

소비자의 눈과 귀를 확실하게 잡아 놓기 위한 방법으로 빅모델만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광고주와 광고인들이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좋은 생각이다. 월드컵 이전에도 우리는 한 명의 빅모델이 오전에는 정수기를 점검하고 점심에는 카드로 쇼핑을 하고 저녁에는 이동전화와 받고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다. 식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확실하고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광고의 메시지와 무관하게 무작정 빅모델을 선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단지 스포츠 스타를 등장시켰다고 성공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는 빅모델의 지나친 무게감으로 인해 제품이 가려지고, 크리에이티브에 제약이 받으며, 나아가 광고의 메시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로서 월드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관념에 수많은 축구스타와 빅모델을 등장시켜 이런저런 광고를 만들었던 KTF보다 FIFA의 규제를 최대한 피해가면서 'Be the Reds' 캠페인을 일관성 있게 펼쳤던 SKT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제 부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고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럴수록, 광고의 메시지 흐름과 톤이 바뀌어질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제품에 맞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민석
코래드 매체기획팀 국장



너의 이름속에 역사와 사회가 보인다

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말을 놓으면, 이름을 다 영이라고 지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골고루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

이름짓기의 의미

나의 딸이 나의 꿈 이야기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딸의 생명을 지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생명은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키워나가게 된다. 하나의 생명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그 의미는 이름을 통하여 생성된다.

이처럼 자식의 이름을 짓거나, 혹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길거리의 나무에게 나름의 이름을 부여하는 이름짓기는 그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름이 생성되고 사라진다.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짓기는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아버라는 타인이나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된 어떤 개인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이름의 의미가 그 고유한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고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호적 속성

어떤 이름이 지니고 있는 생성적 요소와 사회 결정적 요소는 서로 뒤섞여 있어서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이중성, 혹은 언어의 애매모호함을 언어가 지니고 있는 '기호(sign)적 속성'이라고 부른다.

즉, 이름을 구성하는 언어의 ㄱ, ㄴ, ㄷ, ㄹ 등의 물질적 기호(signifier)와 그 의미 덩어리인 개념을 형성하는 기의(signified)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널목에서 파란색의 신호등을 보면 길을 건너고, 빨간색의 신호등을 보면 길을 멈추는 것은 기호와 사회적 관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본래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술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역사와 세계관

역사적으로 이름(명칭)은 수많은 변천의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하나의 언어는 역사적 변

천과정을 겪으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영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색슨족의 역사와 세계관을 보여주고, 한글은 한글을 사용하는 한민족의 역사와 세계관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회의 역사와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언어습득 속에서 언어의 기호적 속성인 이중성이나 애매모호함을 무시하고 그 언어의 사회결정적 요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그물망 속으로 빨려들어가 그 그물망 바깥에 있는 관계를 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언어습득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물질적 기호인 언어의 의미가 생성되는 관계를 사유하는 것이다. 나와 너, 우리와 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여 새로운 이름짓기를 하는 사람들이 시인이나 소설가, 혹은 영화감독과 같은 예술가들이다. 이들은 새로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이름짓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우리가 예술적으로 이름이나 언어의 생성적 관계를 사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언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장시기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짓기 사회·정치단체 명칭 모호 ... 비판적 고찰 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 '꽃'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치기 쉬운 '이름'의 의미를 노래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를 '꽃'으로 만들어준 이름, 이처럼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대상을 지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름과 대상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타당한 관계 성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들에는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현상은 정확한 명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종종 나타난다.

일례로, 북측을 흔히 일컫는 말인 '북한'의 '한'은 남측 국가명인 '대한민국'에서 나온 것으로 남측 중심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북측에서 남측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북측 국가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이름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나라당' '자유시민연대' 등 이 단어들을 처음 접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극히 제한적이고 모호하다.

국민들은 이 이름만 가지고는 이 단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 활동하며 어떤 사상적 성향을 띠고 있는지 간파하기 어렵다. 특히 자유시민연대라는 이름에서는 단체의 보수적 성격보다는 진보적 성향이 더욱 짙게 느껴진다.

이로써 이 집단의 활동이나 공개적 의사표현 등을 통해 단체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단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단체의 성격을 떠나 '민주노동당' '사회당'과 같은 단체의 이름들이 정확한 정치적 지향점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름은 자의적이며, 때로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상의 성격을 분별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름에 고착화된 일상에 함몰되는 것을 경계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즉,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붙여주자.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상품, 그 위엔 브랜드가 있다 기업명·패션브랜드 등 이미지 구축 경향 강해

횃집이 즐비하게 늘어 선 강릉 어느 길목에 '골 말할 집'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가게가 있다. 다른 어느 점포들이 대포항이나 묵호, 다도해 등 특정지명을 이용해 이름을 짓는 반면, 이곳은 사람들의 동경심을 유발해 전략적으로 상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 네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기억되는 물론이요, 기업이나 상품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IMF 환파를 겪으면서 국내의 우수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려는 돌파구로 회사이름이나 상품명을 바꾼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령, 선경그룹이 'Sunkyoung'이라는 옛 영문 표기가 '침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기업명을 SK로 바꾼 경우나 제일제당의 'Cheil'이 'Jail'로 발음되면서 본의 아니게 '감옥'이라는 의미를 내포해 C라는 영문 이니셜로 바꾼 사례만 보더라도, 이름은 더 이상 한 사물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존의 고루한 이미지를 벗고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변혁의지를 개명으로 나타낸 SK와 CJ처럼 이름은 이제 사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타깃으로 한 의류업체들의 브랜드 네이밍도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동안 OO의류로만 통칭되던 상표들이 'STORM=292513' '1492 Miles'처럼 숫자와 영문을 조합한 이름으로 바뀌면서, 뚜렷한 의미 전달보다는 젊은이들 사이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암호처럼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에도 계속

이러고 있다. '자신의, 고유한, 독특한, 구별되는, 차별화 되는'이라는 eigenpost와 미국 대학의 럭비조직 아이비리그 인스티튜트(New York Ivy League Institute)에서 유래한 NII, 그리고 'Companionship And X'의 약자로 포래집단 간의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 캐주얼 브랜드 C.O.A.X. 이들 브랜드 네임은 공통적으로 젊음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층이 주로 젊은 세대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름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보다 젊고 활기차게 구축하려는 전략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구매욕을 느끼게 되고, 기업이 의도한 이미지를 '그대로' 연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브랜드에는 그 시대의 흐름과 유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하듯, 또 많은 브랜드들이 영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상품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즐기는 시대. 주변을 돌아 보라. 무심결에 지나친 브랜드 네임 속에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브랜드 네임의 힘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남남북녀

▲15세기 중엽, 르네상스를 맞은 이탈리아의 베로나. 명문 문테규 가와 신흥 캐펠렛 가는 피로 피를 씻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두 집안의 싸움에 무관심한 문테규 가의 외아들 로미오는 캐펠렛 가의 무도회에서 그 집안의 외동딸 줄리엣을 만나 그녀의 사랑스러움에 반하고, 줄리엣 역시 로미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이 격정의 젊은이들은 양가문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심야 발코니에서 감출 수 없는 사랑을 속삭인다.

▲관중동원에 실패할 거라던 부산 아시안게임이 북측 미녀 응원단 덕분에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형형색색의 한복차림을 하고 통일을 외치는 200명의 미녀 응원단을 보며 "역시 남남북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미녀 응원단 주변에는 국정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안전통제본부 보호를

위해 응원단 주위 몇 미터 안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안전통제본부는 북측 응원단을 포위하고 일반인은 물론 취객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북측 응원단이 화장실 가는데도 이들 통제요원들이 따라다닌다. ▲최근 남북한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하나된 화합과 감동의 '통일 코리아'로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이 부훈 꿈은 안전통제본부의 '통제'로 위기

를 맞고 있다. 통제본부 측은 북측 응원단의 신변보호를 위한 관행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응원석에서 함께 '통일조국' '우리는 하나'를 외치고 싶어하는 양측 응원단에게 그것은 '통제'일 뿐이다. ▲죽음을 불사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의 반대 '장벽'에 막혀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꽃꽂이를 배어난 외모를 갖고 통일을 외

치는 북측 응원단. 그리고 이들에 열광하며 함께 통일을 외치는 남측 응원단. 하지만 통일은커녕 이북에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냉전시대의 후진적 사고방식을 먼저 못하는 안전통제본부. 이들 통제본부의 '장벽'이 양측 응원단의 염원인 '통일 코리아'의 하나된 응원을 끝내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현정 학술부장
tellme@dongguk.edu